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0, Joshua 22 트랜스요르단 부족들과의 작별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0회, 여호수아 22장, 트랜스요르단 지파들과의 작별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들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은 세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작별 인사라는 제목 아래 느슨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업의 땅에 정착한 백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이며, 세 가지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22장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에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트랜스요르단 지파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저 건너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그는 온 민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는 또 다시 국민과 작별을 고한다. 서로 다른 두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23장은 실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24장은 세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은 사람들의 죽음, 즉 중요한 사람들인 여호수아와 요셉, 그의 유골,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자르의 세 가지 죽음에 대한 공지로 끝납니다. 세 가지 마지막 사건에서 조슈아 자신의 개인적인 리더십은 매우 분명합니다.

세 번의 연설을 통해 그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검토하고 그들에게 따르도록 도전합니다. 그분은 그들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었을 때 그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와 종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였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의 비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이 사람을 제시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도움이십니다.

그는 분명히 모세의 후계자이며 여러 면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이 나올 때까지는 그 칭호를 얻지 못합니다. 세 장 모두 과거를 검토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의 초점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정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2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 지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석을 읽어보면 시스-요르단 부족, cis 요르단이라는 어색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요르단 서쪽 지파들입니다. 나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나의 막연한 기억은 시스이고 트랜스는 전자가 원자 내에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장 첫 6절의 배경은 21장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트랜스요르단 지파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 땅을 좋아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은 그들을 온통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기까지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은 이 땅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곳에 정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으며, 앞으로 일어날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아니오, 자신들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일을 한 다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22장의 에피소드에 대한 모든 배경입니다.

처음 여섯 구절은 그들이 약속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 말과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였느니라.

너는 네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다섯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파들의 신실한 순종의 훌륭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주제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이 그룹을 하나의 예로 봅니다. 그냥 부수적인 작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시리즈의 시작 부분인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저는 트랜스요르단 부족들에 관한 본문 1장 10절부터 18절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이 특별한 교회인 성만찬 주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찬식에 관해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예배가 끝날 때 붙이는 일종의 부속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이나 분기의 첫 번째 일요일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깊이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서비스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랜스요르단 부족들에 대한 메시지와 그들과 함께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성찬식과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친교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모일 때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모였다는 것이 바울의 성찬 지시의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결국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바울이 교회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의 트랜스요르단 지파들과 요단강 서편 지파들의 몸이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와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설교로 아주 잘 먹혔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교훈을 주거나 설교할 위치에 있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에서 그들을 축복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그는 계속해서 축복을 하고, 그들은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책은 사물이 우물에 싸여 있다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장은 일종의 임시 결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주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자신의 땅 등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 같습니다.

9절 이후에는 모두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10절부터 시작되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것과 이 장의 뒷부분에서 보는 것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충동, 즉 트랜스요르단 부족들의 칭찬할 만한 충동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그 내용을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지역 에 이르매 거기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제단인 요르단.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 지역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의 동료, 형제, 자매들과 교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에서는 이렇게 큰 제단을 쌓습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것은 큰 제단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이유를 배웁니다. 이야기는 일종의 전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후 부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나오는 용어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요르단 횡단 부족들도 이스라엘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14개의 다른 계열의 12개 지파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 전체의 본문에서는 요단강 서편의 아홉 지파 반, 즉 이스라엘 백성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쪽과 동쪽 사이의 잠재적인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요단강 동쪽 사람들의 관심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 걸쳐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부름에 의한 잠재적인 분리를 강조하며, 요르단 서쪽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은 즉시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로 인해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 에 보면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내전 직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을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이제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협상의 일부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한 믿음이 어찌이뇨 ?? 그러므로 믿음의 위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아간의 죄(7장 1절)와 관련하여 본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의도치 않은 죄 대 고의적인 죄의 문제로 이야기해 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역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레위기 17장에는 성막 부근을 제외한 어느 곳에도 제단을 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위인, 요단강 건너편 지파들은 성막 근처가 아닌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위협이자 배교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아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됩니다. 17절,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브울의 죄에 질렸으니 이로 인해 재앙이 여호와의 회중 위에 임하였느니라.

브울의 죄는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음행을 하게 하고 모압의 딸들인 미디안의 딸들과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의 대다수는 이것이 그것으로의 회귀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순종에 대해, 그리고 책에 따라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과거의 반항적인 세대를 그들 뒤에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삽디의 아들 아간이 믿음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냐? 16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친 물건에 대하여 진노가 그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브울의 죄로 인한 재앙이 일어났고,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스요르단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정말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해 '아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지지자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과 정통 형제자매이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여호와를 거역한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범한 것인지를 알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일 등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밖에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우리 사이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우리는 번제나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말자고 했습니다. 간단히 검토하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걸쳐 요르단 강이 분명히 지리적 경계를 형성할 것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은 결국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몸의 통일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은 그들이 1장에서 했던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쪽이 아닌 서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방인의 제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27절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너희 다음 세대 사이에 증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만일 장차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말하기를 보라 여호와와 제단의 모형이니라 그들이 만드느 제단이 참 제단의 모형이라 하여야 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였노라 그 연결을 유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희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번제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매우 큰 제단입니다. 처음에는 텍스트가 크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일반 제단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둘째, 요단강 건너편이라 그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위에 제물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강 건너편에 있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거기 제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 있는 참 제단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형제자매가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한 표시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남은 회중이 이 말을 듣고 30절 끝에서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말했습니다. 31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이런 믿음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여호와와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홉 지파 반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은 그것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더 이상 내전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왠지 행복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증인으로 지명합니다.

이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우리 사이에 증거하는 것입니다(34절). 그리고 이것으로 그 특별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트랜스요르단 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세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0회, 여호수아 22장, 트랜스요르단 지파들과의 작별입니다.